시론

'그럼에도' 의 감사



이흥배 목사
꿈을이루는교회

17세기 유럽을 휩쓴 30년 전쟁 당시 독일의 작은 성읍 아일렌부르크(Eilenburg)에 마르틴 린카르트(Martin Rinkart) 목사가 있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피난민이 몰려들자 굶주림과 전염병이 뒤따랐다. 1637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목회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홀로 하루에 수십 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다. 그런데 그처럼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그가 남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즐겨 부르는 '다 감사드리세'(Nun danket alle Gott)이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Matthew Henry)가 강도를 만났을 때 드렸다고 전해지는 감사가 있다. "첫째, 이전에는 강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둘째, 재물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셋째, 빼앗긴 재물이 많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넷째, 내가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임을 감사한다." 강도를 만난 것은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다. 감사는 단순히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때문에'의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의 감사이다. 자녀가 합격하고, 사업이 잘되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귀하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다(합 3:17-18).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에도'의 감사이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들의 형편이 모두 넉넉하지는 않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고, 병상에서 한 해를 보낸 이도 있다. 다음 세대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교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친 초막절에 굳이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그곳에 거하며 광야의 시절을 기억했다(레 23:42-43).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도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풍성할 때에는 지나온 고난 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이다. 또한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킬 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다(신 16:14).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는다. 강단 앞에 쌓인 감사의 열매가 예배 후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일자리를 잃은 이웃의 식탁으로 옮겨질 때, 교회의 감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 참된 감사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었기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감사는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꾼다. 원망의 눈을 은혜의 눈으로 바꾸고,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게 한다. 건강을 잃었어도 곁을 지켜준 가족이 있고, 사업이 어려워도 함께 기도해 준 지체가 있다. 무엇보다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때문에'의 감사를 넘어 '그럼에도'의 감사를 드리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社說

추수절과 재림신앙

하늘과 땅의 법칙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 자연의 순리와 이치는 지구촌에서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절과 이십사절기는 농경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국가의 우선순위였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나라와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과학정보시대요,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무역의 시대가 되었으며, 인간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의 개발이 기반이 되는 기술 산업의 시대인 것이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AI 기술과 로봇 산업, 바이오 생명 의학의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정책이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가치 투자에 우선하고 있다. 이것 역시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이다.

금년도 가을은 10월 말경인데도 태풍 '참피'가 발생하여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였는데, 대만을 거치면서 일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제주지역과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에 많은 비가 온 것이다. 예년과 같지 않은 10월의 태풍은 기후변화와 태평양의 수온이 높고, 엘니뇨(El Nino)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자연 기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이들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결실을 거두는 수고의 기쁨은 땀 흘린 보람이요, 수고의 대가이기에 즐거운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의 삶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감사는 행복지수(幸福指數)의 척도이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까지 즐거움과 웃음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일인가?

자연의 법칙에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회에도 이러한 원리와 법칙은 그대로 존재한다. 사람도 심고 거두며, 행한 대로 공평하게 보상받는 원리가 있다. 이것이 공의로운 사회요,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좋은 세상이다. 서로가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가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이웃이 된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비록 현 세상은 전쟁과 기근, 재난과 질병 등으로 지역 간, 국가 간에도 분쟁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 각종 테러와 테모와 마약과 온갖 범죄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폭발한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국(時局)에도 추수의 계절에 감사한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외쳐보면 어떻겠는가? 누군가가 시작하면 이 세상은 더 밝아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추수의 때가 있다. 영혼을 추수하는 때요, 세상 종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다. 성경은 증거 한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어 곡식을 거두듯이, 알곡은 모아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듯이(마 3:12, 마 13:24-30, 36-43),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다(마 25:46).

그러므로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이 있다. 첫째,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 전도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자. 둘째,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자가 되자. 셋째, 재림의 신앙과 복음으로 참 소망 중에 범사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 추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거두는 현장이 되도록 하자. 그리하면 교회마다 영혼 추수를 통한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성숙한 감사



김순홍 목사
일산동광교회

11월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 '감사'이다. 추수감사예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예배이다. 이때는 목사가 특별한 성경본문을 정하고 설교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된다. 한해를 지나면서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2026년에도 지난 10월 25일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목사인 나는 개인적인 감사가 참 많은 해였다. 그중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믿음 성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도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고백이 아니다. 물질적, 육체적 건강, 관계적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도우심을 느끼고 현재의 시점에서 감사한다는 사실적 현실이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감정들은 집을 나가고 싶었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회복되고 안정되며 더 좋게 해결되었음에 감사한다는 신앙고백들이었다. 기대가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고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르기를 기도한다.

일상의 감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19년 방영되어 55회 백상대상 TV부문 대상수상자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극중 나레이션)이 우리의 오늘을 감사케 한다.

"내 삶이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찡한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 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형편과 나이, 조건과 상황, 시대에 따라 종류와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인생 후반에는 걷는 것과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온다. 이러한 사실을 젊은 시절에는 깨닫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그 시간이 이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나의 과거와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감사도 있지만 또 진정한 감사, 절대적 감사는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열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친숙한 마음의 표현이고 전달 언어이다. 비교와 조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받을 때보다 줄 때, 섬김에서 찾을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이다. 성숙한 감사의 열매는 웃음과 평화, 여유와 사랑, 따뜻할 일 것이다.

감사는 자신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겸손함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불평, 원망, 경쟁, 열등감, 우월감, 교만이 일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기가 쉽다. 행복과 즐거움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맛보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함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의 삶을 감사함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환경, 완벽한 조건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완벽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다. 오늘도 나의 조건과 욕심이 채워진 감사가 아닌 살아 있음과 사랑할 대상이 있음, 사명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종만 **사장** 김종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수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 · 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본지 구독후원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
1차 - 강대건 강창희 강호철 고한규 공요섭 권오봉 기은정 김기웅 김명수 김미화 김민영 김병옥 김보현 김성천 김수연 김영수 김영수 김영재 김태성 두명균 문기찬 박성호 박소영 박정해 박주동 박주연 배명덕 배상도 서계원 서규환 성윤모 손영삼 안영호 양경애 여성현 오선택 우수동 유 신 윤맹석 윤상희 이명구 이보영 이옥경 이원준 이윤구 이정선 이재수 이종이 이철영 이희욱 임세빈 임찬규 임흥근 전상준 전솔로몬 정영달 정영식 정준영 정한균 조기현 조영선 조용행 조일구 차임순 최삼순 최영호 한양수 황규정 황선희 황인배

2차 - 강필식 강호경 김광수 김기용 김노벌 김대환 김문식 김부열 김성화 김승경 김정호 김존수 김종현 노윤식 동청웅 류제곤 박용철 박인창 박종렬 박종복 박종학 박주욱 박주활 박현재 백운필 백준호 변재용 서영길 서인원 서정범 서혜정 손기선 신현과 심재근 심충보 안현자 여현성 윤상희 윤성균 윤효균 이강희 이상복 이성호 이영은 이장우 이재륙 이종원 이충호 이태희 이홍재 임정문 장성문 정병구 차창선 최상현 한 민 함성일 홍석금 황충만

3차 - 이상준 최한규 공기식 석준기 신용수 엄태호 강금성 주낙황 지연숙 기정봉 진상만

(장로)
1차 - 김영근 강기만 권영일 김동준 김동찬 김성옥 김순만 김신용 김영수 김영철 김원철 김유원 김응하 김재철 김종상 김종신 김지점 김창영 김한태 김호경 김호중 노재억 문기충 박보웅 박봉준 박승룡 박영일 박유현 배태호 백석철 백운규 서종로 석창성 송창호 신상구 신창성 안영섭 양동천 양형렬 여종훈 오광록 오재호 우기복 유근석 윤장성 이강균 이강선 이국종 이상문 이성일 이응복 이정숙 이종훈 이준우 이창우 이 천 이홍식 임양수 장영만 장진택 조용배 조현행 천민우 최종천 탁수명 한봉석 한정수 홍사성 홍성표 황용근

2차 - 강규열 김남태 김왕기 김재홍 김종희 김학범 김홍택 노윤균 박명신 박원석 박종천 백종만 선종영 손정화 손주영 우대일 유지영 이덕희 이용진 이종선 이진왕 임덕배 장명수 정대섭 정태관 조창행 최병순 최봉옥 최진수 최창수 홍성중 황규창 황명욱 황제돈

3차 - 강경수 강병익 권이복 김영복 김영호 김인철 김진목 박선규 박신용 박승배 양승권 오장근 유광영 유광현 윤희수 이기환 이동규 이종수 차준현 천 석 최경식 최종호 황노연

(교회)
1차 - 가사 거제참좋은 광석 기쁨의 넘치는 늘사랑 능력 동광제일 두란노 마산성지 맑0 비산동 새에덴 생명줄 서산동암 성서 세움 안내 안산참좋은 열린문 영동온누리 예우리 예음 용인 전주효문 참빛 참빛누리 창동진실 청산전원 평화 푸른마을 하늘샘 한마음 햇빛 헤세드공동체 무명

2차 - 궁항리 대신 더드림 드림 방0 부평성산 서삼 성광 소명 수원반석 신소망 신흥 안양 에셀나무 율산수암 원주신흥 은강 의왕성결 장유남산 증석 창원성지

3차 - 개군영광 독일 두란노(하남) 든든한 빛나는 신수동 예수마을 이천중앙 자연우리 주사랑 진도엘림 화평 희망을주는

(기타)
남해전자(1차) 성결신학원(2차)

※ 교회명으로 입금 시 교단명을 제외한 8자 이내 교회명으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11월 1일 오전 입금분까지 반영. 가나다 순〉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결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6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리오니 발송된 지로용지나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결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성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